

도널드 트럼프는 연합국 회의에서 종교 자유 촉진, 파룬궁 대표 요청받고 출석

2019년 9월 23일, 연합국 '전세계 종교자유 보호 호소'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게감 있는 연설을 했다. “미합중국은 명확한 목소리로 그 국가들에 종교적인 박해를 끝내며, 신앙인을 탄압하는 범죄를 저지하며, 양심범을 석방하고,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폐지할 것을 호소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대통령은 오늘 유엔에서 종교자유회의를 주재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은 그의 진정한 영광이라고 표시 했다. “우리의 건국자들은 어떤 권리보다도 한 사람을 따르는 종교적인 권리가 평화, 번영, 그리고 도덕적인 사회에 더 근본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트럼프는 세계 약 80%인구가 그런 종교자유가 “위협당하고, 제한받으며, 심지어 금지당하는 국가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또 아주 많은 신앙인들은 늘 그들의 견정한 종교 신앙 때문에 경상적으로 본국의 정부에 감금, 제재, 고문, 심지어 살인까지 당하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믿기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말했다. “올해 7월, 나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종교박해 생존자와 면담했습니다. 그들 중의 많은 사람이 오늘도 여기에 울수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중 일부 사람들은 국가가 지지하는 박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또 잃은 사람들은 죄범 손아귀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미국은 영원히 각 지역에서 종교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무릇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미국은 당신에게 한 자리를 남겨 둘 것입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나의 최고 우



◀7 월 17 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중국, 터키, 북한, 이란 그리고 미얀마 등 17 개 국의 종교 박해 생존자 근 30 명과 면담을 가졌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룬궁수련자 장위화와 악수하는 장면.

선 사항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세계 각국 정부가 각자의 양심에 따라, 자신의 신앙으로 살아가며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영원한 권리를 존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파룬궁대표 장얼핑(张而平)을 포함한 종교 박해를 받은 여러 명이 초청받고 이 회의에 참석했다.

세계 제일의 강대국의 대통령이 연합국에서 이런 호소를 하며 행동에 옮기는 것은 세계에서 어떤 진동과 영향을 주는 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세계에서 거리낌 없이 신앙인을 박해하고 신앙 장소를 파괴함에 가장 잔인한 중국공산당정권은 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계속하여 덮어 감춘다. 9 월 24 일, 대륙 전체 매체는 트럼

프의 무게감 있는 연설에 대해 단 한 건의 보도도 없었으며, 중국공산당 외교부 대변인조차 언급을 하지 못하고, 비난의 화살을 펜스 부통령에게 겨누었다. 분명히 트럼프의 연설 내용에는 중국 공산당이 감히 응하지 못하겠으나 조금도 응하지 않으면 정말 창피해서 펜스의 말로 미국을 반격하였다.

중공의 허장성세를 세계는 모두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자유를 연합국 이대 무대에 올려놓은 후 반드시 더욱 많은 민주 인권을 신봉하는 국가 영도자들이 미국을 따라 중공의 죄악을 공개 규탄할 것이다. 세계 정의의 목소리가 더욱더 커질 때면 앞길이 없는 중공은 또 어디로 갈 것인가? ◇

만종 문안을 명혜망에 보내 리홍쯔(李洪志)사부님께 올린다



[밍후이왕] 올해 9월 13 일은 중국의 전통명절 추석이다. 명혜망은 16,000 종을 넘는 리홍쯔(李洪志)사부님께 올리는 축하 카드와 축하 편지를 받았다. 분간해 정리한 결과 13,391 건이 발표됐다. 발표된 축하 카드와 축하 편지중 98%은 중국 대륙에서 왔고, 2%는 해외 각국에서 왔다.

20 년간 중국공산당의 엄중한 박해를 받아온 오늘, 중국 대륙의 파룬궁수련생은 탄압 당해 넘어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파룬따파(또 파룬궁이라고도 부름)의 진귀함을 더욱 체득하였으며, 부단히 새로 수련자의 항열에 들어왔다. 중국 파룬궁수련생은 인터넷 봉쇄를 뚫고 해외 명혜망에 축하 카드와 축하 편지를 보내 역사를 기재하고, 파룬따파의 위덕을 견증했다. ◇



사복경찰 손을 들고 탈당하다

거리에서 진상을 알릴 때 사복경찰이 거리에서 다니는 것을 늘 본다. 어떤 사람은 손에 ‘도구’(무엇을 듣든지 거드랑이에 뭘 끼고 있다든지 어떤 사람은 빈손이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들었음)’를 들고 본인 신분을 위장했다.

이것은 그들의 일이다. 사실 많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다. 그들 많은 사람이 파룬궁(法輪功)을 박해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한 경찰이 말한 것처럼 “나는 배불리 먹고 잘 마시면 된다.” 그럭저럭 시간을 보내면 된다는 뜻이다. 사실

이런 사람이 진상을 제일 많이 들었다. 누가 좋고 누가 나쁜 것을 그들은 속으로 다 알고 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소리 소문내지 않을 뿐이다.

며칠 전에 나는 손에 ‘도구’를 들고 늘 거리나 큰길을 걷는 이런 사복경찰을 만났다.

나는 다가가서 그에게 웃으면서 낮은 소리로 말했다. “나는 선생님이 될 하는 사람인지 압니다.” 그는 나를 보고 웃었다. 나는 말했다. “나는 파룬궁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사복경찰은 알고 있었음) 선생님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말고 악인을 돕는 일을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자기를 해치는 일은 더 하지 마세요. 공산당은 천안문 분신자살가짜 사건을 조작해냈고 수많은 파룬궁 수련생을 살해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산당이 선전한 사람 같은 수련생이 없습니다. 파룬궁 수련생은 모두 도덕성이 고상한 좋은 사람입니다. 하늘이 공산당을 멸하려 하니 선생님은 목숨을 보전해야지요.”

나는 그에게 가명을 지어 주고 삼퇴하라고 했다. 그는 오른손을 들고 웃으면서 머리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나는 또 그에게 알려주었다. “꼭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쩌싼런하오(眞善忍好: 진선인은 좋습니다.)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것은 잘못이 없습니다.” 사복경찰은 다시 오른손을 들고 웃으면서 머리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앞에 CCTV 가 있는 것을 보고 다급하게 나와 헤어져 돌아갔다. ◇

연변주 훈춘시 정법위 부서기 리파(李波)를 폭로하다

[밍후이왕] 2015 년에 훈춘시 정법위 부서기, 610(장쩌민집단이 파룬궁박해를 위해 전문 성립한 불법조직)사무실 주임으로 인계받은 리파는 이 ‘사망위치’로 불리는 자리에서 장쩌민, 중국공산당강패집단을 따라 적극적으로 파룬궁수련생 박해에 참가했다.

아래는 리파가 파룬궁 박해에 참여한 일부분 안건이다.

1. 2015년 4월 훈춘시 수족여관(秀竹旅社)에서 세뇌반을 꾸려 왕효춘(王孝春)등 여러 명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했다.

2. 2015년 말부터 2016년 1월 중순, 파룬궁수련생 리희련(금년에 68세)을 박해해 3년 반의 불법 징역형을 내렸다. 리희련이 감옥에서 어떠한 박해를 받았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2019년 5월말 출옥해서 생활은 이미 스스로 처리할 수 없었고, 머리는 때때로 깨어 있고, 때로는 흐리멍덩하고, 멍청할 때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단지 8,9세 아이들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리희련이 납치되기 전까지는 아주 건강했다.

리희련은 퇴직 교원이다. 불법 징역형을 받은 후 그녀의 퇴직금은 불법으로 정지당했다. 현재 간호와 치료를 받으려면 돈이 수요된다. 하지만 남편은 70여 세이며 뇌경색에 걸려 반신불수여서 집을 나설 때는 휠체어에 앉아야 하며, 말을 똑똑히 할 수 없다. 아들과 며느리는 임시 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울지 가히 알 수 있다. 집식구들은 별

방법이 없어 법에 따라 리희련의 퇴직금을 받으려 했으나 리파는 리희련이 감옥에서 전향하지 않았기에 주지 않는다고 했다.

3. 2018년과 2019년에 연속하여 조선족 파룬궁수련생 리춘만을 소란하고 박해했다. 리춘만은 70세가 가까운 사람으로서 손자, 손녀를 돌보고 있다. 연속되는 소란과 위협, 공갈에 그는 아주 큰 상해를 받았다.

4. 2018년 5월, 파룬궁수련생 리춘옥이 납치당했다. 구치소에서 4명의 경찰이 그의 팔을 누르고 손도장을 찍으라고 강박했다. 리춘옥이 협조하지 않으니 경찰이 리춘옥의 팔을 비틀어 팔꿈치 관절 이하가 골절됐다. 병원에가 사진을 찍고 골절로 진단 받았다.

5. 2017년 사당(邪党) 10.1 기간 구치소에서 세뇌반을 꾸려,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했다. 이번의 박해는 근래 큰 규모의 소란박해였다. 리파는 국보, 순라경찰, 파출소, 사회구역 인원들을 지휘해 파룬궁수련생의 집을 수색했다. 한 권의 파룬따파서적, 한 장의 진상 자료, 한 단락의 연공음악만 수색해 내면 사람을 잡아갔다.

구치소에서 리파는 구치소 경찰을 지시해 파룬궁수련생을 지키게 하고, 외지에서 2명의 유다(변절자)를 불러와 파룬궁수련생을 ‘전향’시키게 했다. 그리고 ‘전향’하지 않으면 판결한다고 소문냈다.

6. 2017년 말, 파룬궁수련생 계군(季君)이 사람들에게 진상 달력을 배포하다가 진상을 모르는 사람에게 고발당했다. 610은 계군을 전향하라고 협박했으며, 모함해 검찰원, 법원에 보냈다.

7. 현재 68세인 파룬궁수련생 고금영(高金英)과 77세인 리숙매(李淑梅)는 여전히 불법으로 연길구치소에서 감금되어 박해 당하고 있다.

8. 현재 장애인 파룬궁수련생 장준령(張俊玲)이 불법심사에 직면했다. 그의 심사 기소장에 “회도문, 사교조직에 참여하고,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실시를 파괴했다”라고 적혔다. 이런 공공연한 거짓말, 황당한 논조는 오직 공산사당의 통제아래서만 발생 할 수 있다.

정법위 부서기와 610 두목으로서 리파의 마음에는 파룬궁수련생은 모두 좋은 사람이고, 파룬궁수련이 중국에서 위법이 아니며, 중국의 그 어느 한 조례의 법률에도 파룬궁을 사교로 정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아주 똑똑히 알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한개 정당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한개 사교에 강패무리이다. 그것을 따라가는 결말은 짐작이 간다. 파룬궁수련생은 여러 차례 리파에게 진상을 알려 그가 양심을 지켜 박해에 참여하지 말 것을 희망했다.

여기에서 또다시 리파에게 권고한다. 하늘이 중공을 멸하는 기한이 되었으니 선과 악의 선택은 일념에 있다. 이 일념은 당신과 당신 가족의 생명의 미래를 결정한다. 리파의 선념이 커지고, 커지고, 또 커져 당신의 위치에서 자신을 새롭게 고쳐 파룬궁수련생을 보호하고 선하게 대해 공을 세워 속죄할 것을 희망한다.

따파(大法)는 자비하고, 파룬궁수련생은 선량하다. 아직도 공산당을 따라 가는 사람들의 생명이 깨어나 이 최후의 기회를 잡고 자신과 집식구를 위해 정확한 선택을 할 것을 진심으로 희망한다! ◇

여덟 살 아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다

[밍후이왕] 우리 집은 료녕성의 한 작은 도시에 있습니다. 최근 제가 겪은 막다른 곳에서 길이 열렸던 일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들은 올해 8세로 성품이 활달한 귀여운 아이입니다. 2019년 2월 28일, 나와 아내는 아들의 오른쪽 팔다리가 불편한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걱정하다가 시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아동병원으로 데려가 진찰을 받은 결과 ‘신경모세포종’(神經母細胞腫瘤)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 불행한 소식은 (噩耗) 갑자기 닥친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의사는 “수술은 안 되고 화학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화학치료는 어른도 받기 힘들는데 어린아이는 오죽하겠나!’ 하는 생각에 화학치료를 신청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나의 모친과 처가댁 어른들은 모두 믿을 수 없다며 북경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하기로 했고, 인맥을 통해 북경 아동연구소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여러명의 전

문가들이 회전결과 당지 아동병원의 진단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또한번 실망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또 화학치료를 건의했습니다. 우리는 접수하지 않고 아들이 기어이 집에 돌아오자고 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장모님의 동료는 알게된후 장모에게 조씨를 아는가고 물었고 빨리 그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조씨는 파룬궁(法輪功)을 수련하는 장모님의 친척이었습니다. 조씨는 소식을 알게된 이튿날, 장모님을 통해 보서(寶書)인 ‘전법륜(轉法輪)’(파룬궁 주요저서)과 연공 음악을 우리집에 가져다 주면서 온 가족이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정성껏 외우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시키는 대로 잘 받아들여 즉시 ‘파룬따파 하오, 찐싼런



하오’를 외웠으며, 우리 부부도 급히 ‘전법륜(轉法輪)’을 읽었습니다. 아이는 매일 잠들기 전 사부님의 설법을 들었는데, 다음날부터 열이 내려 편히 잠들 수 있었으며 복용하던 약도 끊었습니다.

며칠 후, 아이는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었고, 손에도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 일련의 일들이 매우 신기해서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법륜(轉法輪)’, 이 책은 보서로서 진정한 신서(神書)이고 천서(天書)입니다! 현재 우리 아이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저의 아내도 정식으로 파룬궁수련을 시작했으며, 매일 ‘전법륜(轉法輪)’을 읽고 연공을 합니다.

아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파룬따파의 ‘진선인(眞善忍)’ 법리는 우리 온 가족을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사부님의 큰 은혜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현재 나와 아들이 매일 첫 번째 하는 큰일은 바로 사부님께 절을 올리는 것입니다. ◇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찐싼런하오(眞善忍好)!’



8월 달에 파룬궁수련생 548명이 납치를 당하다

[밍후이왕] 2019년 8월에 중공은 ‘70주년 경축 사회안정’ 등 이유를 빌미로 파룬궁수련생을 계속 납치하고 소란을 피웠다. 밉후이왕의 정보 통계에 따르면, 8월에 적어도 548명이 납치를 당했고, 215명은 교란을 당했으며, 53명은 불법 선고를 받고 40명은 불법적인 법정 심문을 받았으며, 72명은 강제 세뇌를 당하고 71명에게는 체포령이 내려졌다. 납치당한 파룬궁수련생 중에 170명은 이미 집으로 돌아갔고, 한 명은 정념으로 탈출했으며 3명은 소식이 끊겼다. 또한, 240명은 가택수색을 당하고 4명은 박해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 헤이룽장(黑龍江)성 자무쓰(佳木斯)

시 파룬궁수련생 양성전(楊勝軍)은 구치소에서 박해로 사망했다. 8월, 중국공산당경찰은 불법적으로 가택에 침입해 19만 7753원을 강탈했다. 8월, 52명의 65세 이상의 노년 파룬궁수련생이 납치, 소란 당했으며, 최고 연령은 86세이다. 사천성 량산주 웨시현 84세 파룬궁수련생 리위쑤는 불법체포 당해 현재 윈닝현 구치소에 감금당했다.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중국공산당 경찰은 적어도 3628명의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하고, 1949명을 소란했고, 적어도 490명 파룬궁수련생이 불법징영형을 선고 받았으며, 513명이 불법심사를 받았다. ◇